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2019년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오래된 경구처럼 지나간 역사는 단지 잊혀진 과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과 지혜를 찾아내고 이를 동시대의 수많은 과제들을 헤쳐 나가는 나침반으로 삼는 것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격동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의 높은 파고 속에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기본으로 돌아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제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 온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내외의 주요 법제적 이슈들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법제 연구의 역사적 시간을 충실히 축적해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 도입되어 운용 중인 수많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의 과거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향후 법제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0년의 역사에 대한 회고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맞이할 100년의 시간에 대한 다짐과 포부를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한편 국내외의 주요 법제적 이슈들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법제 연구의 역사적 시간을 충실히 축적해나가고자 합니다. ”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번호에 ‘뜻으로 본 대한민국 임시헌장 100년’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기고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가지는 법제사적 의미를 심도 깊게 반추하고 기념하기 위한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특집 이슈인 ‘도시재생’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국내에 소개된 이후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을 근거로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공급 문제, 복지정책, 산업육성은 물론 청년 일자리 마련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보고, 법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성과와 더불어 향후 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로 특집이슈를 구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강화와 통일법제 관련 이슈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되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되었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큰 걸음을 내딛고 진행 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강화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차분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시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남북 이산가족 법·제도 정비방향 연구 등을 주제로 한 논의를 이번 호에 담았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역사의 격변기에서 스스로의 사명과 목표를 잊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여 대한민국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